

# 멕시코의 니어쇼어링 전환과 정책 과제

Adolfo Laborde

Mexican-American Studies Department, University of Arizona  
Postdoctoral Fellow



## 배경과 분석 시각

### USMCA 2026 공동 검토와 니어쇼어링의 전략적 의의

니어쇼어링(nearshoring)은 팬데믹 이후의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북미 공급망 재편의 핵심 전략으로 정착하였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의 첫 번째 6개년 공동 검토\*가 2026년 7월 1일로 예정된 가운데, 멕시코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2025년 12월 초 공동 검토를 위한 증거와 정책 입장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sup>1)</sup> 2026년 2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북미산 부품 조달 요건 충족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2)</sup>

1)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2025, December 1). Public Hearing on the First Joint Review of the USMCA.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5/december/public-hearing-first-joint-review-usmca>

2)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2026, February 19). USITC to Investigate Impact of USMCA Automotive Rules of Origin on the United States in Third Factfinding Report in Series (News Release 26-026; Inv. No. 332-608). [https://www.usitc.gov/press\\_room/news\\_release/2026/er0219\\_68151.htm](https://www.usitc.gov/press_room/news_release/2026/er0219_68151.htm)

# 전문가가 바라본 글로벌 핵심 이슈와 시사점

\*USMCA 공동 검토(Joint Review): USMCA 제34조 7항에 규정된 공동 검토(Joint Review) 조항으로, 협정 발효(2020년) 후 6년째인 2026년에 첫 번째 검토가 실시된다. 3국이 서면으로 연장에 합의하면 협정은 2036년까지 유지되며 차기 검토는 2032년에 실시된다. 한 국가라도 반대할 경우 연간 검토 체제로 전환되며, 2036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정이 만료된다. 협정 만료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일몰 조항(Sunset Clause)'으로도 불린다.

본 보고서에서 '니어쇼어링 2.0'은 단순한 무역 전환을 넘어 역량 중심의 지역화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2·3차 협력업체 생태계 고도화, △국내 부가가치 비율 제고, △원산지·노동·환경 기준 준수 역량을 갖춰 2026년 USMCA 공동 검토 이후에도 북미 공급망 회복력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sup>3)</sup>

## 탈중국 흐름과 미국 수입 비중 재편

무역 데이터는 이미 공급망 재편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미국 수입 비중 분석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중국의 비중은 하락한 반면 멕시코와 일부 아시아 경제권의 비중은 상승하였다.<sup>4)</sup>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최근 집계에서도 멕시코는 총 무역 기준 미국의 최대 상품 교역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멕시코에 대한 기회의 규모를 가늠하게 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적 감시가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sup>5)</sup>

본 보고서는 무역 구조 재편이 멕시코의 발전 전략과 한국을 비롯한 협력국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고, 2026년 USMCA 공동 검토를 통해 규정 준수 환경이

한층 강화되기 이전에 '니어쇼어링 2.0'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 글로벌 가치사슬 리스크 관리로서의 니어쇼어링

본 보고서는 USMCA 검토 역학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거버넌스를 분석 틀로 삼아 멕시코의 니어쇼어링 기회를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안정적 접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원거리 또는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공급 거점의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생산 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인접국으로의 이전), 리쇼어링(reshoring, 자국으로의 복귀),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우방국으로의 이전)을 혼합적으로 활용한다. 이에 따라 리스크 관리, 규정 준수, 공급망 회복력이 단위 비용 못지않은 핵심 전략 변수로 부상하면서 기업의 입지 결정 논리도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본 보고서는 세 가지 목표 아래 구성된다. 첫째,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통계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은 무역 기반 지표—미국 수입 비중

3) OECD. (2023). Deglobalisation? The reorganisation of global value chains in a changing world.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3/04/deglobalisation-the-reorganisation-of-global-value-chains-in-a-changing-world\\_324dfabd/b15b74fe-en.pdf](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3/04/deglobalisation-the-reorganisation-of-global-value-chains-in-a-changing-world_324dfabd/b15b74fe-en.pdf)  
 4)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2024, July). Evidence of nearshoring in the Americas? BIS Bulletin No. 94, and Online Annex (Graph A1). <https://www.bis.org/publ/bisbull94.pdf> ; [https://www.bis.org/publ/bisbull94\\_annex.pdf](https://www.bis.org/publ/bisbull94_annex.pdf)  
 5) U.S. Census Bureau. (2025). International Trade: Top Trading Partners — December 2025 (goods, Census basis; unrevised).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statistics/highlights/topyr.html>

변화 및 양자 무역 규모—를 통해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둘째, 이러한 변화를 멕시코의 핵심 제약 요인인 물류, 에너지 안정성, 수자원 및 산업용지, 인허가 속도, 기술 인력, 표준 인프라, 협력업체 역량 강화와 연계하여 분석한다. 셋째, 2026~2035년 전망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향후 12~24개월 내 실행 가능한 정책 의제를 제안한다.

### 성패를 가르는 부문과 시스템

본 보고서는 멕시코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니어쇼어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자동차·전기차, 전자기기·조립, 의료기기 등 규제 제조업)와 성패를 좌우하는 범분야 시스템(통관 원활화, 산업단지, 규정 준수 문서화, 디지털 서비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개별 기업의 투자 동향을 예측하기보다는, 니어쇼어링이 언론 보도를 넘어 실질적으로 구현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026년 공동 검토 이전의 기회

본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멕시코의 기회에 명확한 시간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2026년 공동 검토는 3국의 협정 연장 합의 여부에 따라 북미 무역 질서가 재편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업들이 집행 강화를 우려할 경우 투자 불확실성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멕시코가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신뢰도를 제고하는 개혁의 계기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멕시코는 공동 검토 이전 시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프로젝트 추진 기간 단축, △2·3차 협력업체 생태계 고도화, △북미 생산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규정 준수 역량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무역 동향과 공급망 재편

### FDI보다 무역 동향 지표가 중요한 이유

니어쇼어링의 진전을 해외직접투자(FDI) 발표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니어쇼어링의 실제 움직임은 무역 흐름, 협력업체 전환, 산업 시설 건설, 물류 경로 재편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 FDI 통계는 기업 구조와 금융 경로의 특성상 후행하거나 불규칙한 신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연구는 이러한 혼재된 증거(mixed-evidence)의 문제를 지적한다. 무역 비중은 공식 집계된 그린필드 투자(Greenfield Investment)\*보다 빠르게 변동할 수 있고, 일부 FDI는 최종 투자 대상국이 아닌 중개 경로를 통해 계상되기도 하기 때문이다.<sup>6)</sup> 따라서 니어쇼어링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가별 수입 비중 분석이 바람직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린필드 투자(Greenfield Investment): 기업이 해외에서 공장·시설 등을 신규로 건설하는 방식의 직접투자로, 기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M&A형 투자와 구별된다.

### 멕시코의 약진과 아시아의 대변화

관세 인상 이전인 2017년 12월과 2024년 5월을 비교한 BIS 분석은 뚜렷한 재분배 추세를 보여준다. 미국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은 21.9%에서 13.7%로 하락한 반면, 멕시코는 13.4%에서 15.6%로 상승하였다.<sup>7)</sup> 캐나다의 비중도 소폭 증가했고, 다수의 아시아 경제권도 비중이 확대되었다. 이는 중국 의존도 축소가 멕시코로의 단순 이전이 아닌 다방면의 분산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6)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2024, July). Evidence of nearshoring in the Americas? BIS Bulletin No. 94, and Online Annex (Graph A1). <https://www.bis.org/publ/bisbull94.pdf> ; [https://www.bis.org/publ/bisbull94\\_annex.pdf](https://www.bis.org/publ/bisbull94_annex.pdf)

7)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2024, July). Evidence of nearshoring in the Americas? BIS Bulletin No. 94, and Online Annex (Graph A1). <https://www.bis.org/publ/bisbull94.pdf> ; [https://www.bis.org/publ/bisbull94\\_annex.pdf](https://www.bis.org/publ/bisbull94_annex.pdf)

보여준다. 기업들이 공급 이중화('China+1/+2') 전략을 추진하고, 아시아 내 중간재 공급원을 재편하며, 최종 조립이나 원산지 검증이 중요한 공정을 미국 시장 인근으로 옮기는 흐름과 일치하는 양상이다.

**<표1> 주요 경제권별 미국 수입 비중**

경제권 / 그룹	2017년 12월 (%)	2024년 5월 (%)
중국	21.9	13.7
멕시코	13.4	15.6
캐나다	12.8	13.3
한국+대만+싱가포르	5.7	8.4
인도+태국+말레이시아+인도 네시아	5.9	6.9
베트남	2.0	3.9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기 타	2.8	2.8
기타 국가	35.2	34.7

출처: BIS Bulletin 94 부록

**비용 중심에서 규정 준수 중심으로의 전환**

이러한 수입 비중 변화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거버넌스의 광범위한 개념적 전환과 맥락을 같이한다. '비용 주도형 세계화' 시대에는 기업들이 임금 격차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 생산을 분산화하였다. 그러나 2018년 이후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업들은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 차질 가능성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GVC 관점에서 거버넌스 기준도 한층 엄격해졌다. 선도 기업과 규제 당국은 이력 추적, 노동·환경 기준 준수, 원산지 증빙을 요구하며, 이는 협력업체에 새로운 고정 비용을 안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니어쇼어링은 단순한 근거리 이전이 아닌 불확실성 속에서의 최적화 문제로 재정의되었다.

멕시코의 기회는 공급망 재편의 구조적 전환 과정을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프쇼어링(offshoring, 해외 생산 이전)은 1970~1990년대 수출자유구역 설립과 초기 지역화를 통해 확산되었고, 1990~2008년 이른바 초세계화 시기에는 중국이 주요 제조업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가속화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8년 관세 충격 이후 리스크 재평가가 본격화되었으며, 2020년 이후에는 팬데믹발 공급 차질, 공급 안보 우려, 리스크 분산 전략이 기업 경영진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전환의 동인이 경기적 수요 변화에 그치지 않고 완만하게 변화하는 제도적·정책적 불확실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망 재편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구조 변화로 이해하여야 한다.

**니어쇼어링의 실질적 정착 여부**

국가별 미국 수입 비중 변화는 멕시코에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미국 수입시장에서 멕시코의 비중 증가는 세계 최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 베트남과 한국·대만·싱가포르 그룹이 동시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멕시코가 지리적 근접성뿐 아니라 신뢰성과 실행 역량 면에서도 경쟁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니어쇼어링이 무역 지표에서는 뚜렷이 나타나는 반면 FDI에서는 고르지 않게 관찰되는 만큼, 정책 모니터링은 보다 폭넓은 지표 체계를 포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i) 부문별 미국 수입 비중, (ii) OECD 부가가치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과 같은 부가가치 지표, (iii) 산업용 전력 소비량 및 산업단지 입주율, (iv) 인허가 처리 기간, 국경 통과 소요 시간, 협력업체 인증 준수, 산업 건설 착공 현황 등 고빈도 지표\*가 이에

해당한다.

\*고빈도 지표(high-frequency indicators): 월별·주별 등 짧은 주기로 집계되어 경제 변화를 실시간에 가깝게 포착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한다.

양국 간 경제 통합의 규모는 이러한 함의를 더욱 부각시킨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2025년 12월 기준 주요 교역국 통계에서 멕시코는 총 무역 기준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양국 간 상품 무역 총액은 8,396억 달러(1,237조 8,200억 원)에 달한다.<sup>8)9)</sup> 이러한 규모는 멕시코를 북미 생산 네트워크에 긴밀히 연결하는 기회 요인인 동시에, 양자 무역 적자가 확대될 경우 미국의 정책적 압박과 정치적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다.

니어쇼어링의 효과는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간대 근접성과 서비스 교역 가능성은 상품에 내재된 기업 서비스—엔지니어링, 설계, 물류 조정, 소프트웨어, 고객 지원—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른바 비가시적 경로는 모든 중간 투입재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 전략상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2> 미국-멕시코 상품 무역

기관 / 출처	수출	수입	무역 총액	무역 적자
2024 (USTR)	334.0	505.5	839.6	-171.5
2025 1~12월 누계 (인구조사국)	338.0	534.9	872.8	-196.9

주: 출처에 따라 상품 무역 데이터만 사용되며 집계 기간이 상이함.

### 다원화 네트워크 속 멕시코의 전략적 가치

국가별 미국 수입 비중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멕시코의 역할은 단순히 중국을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원화된 공급망 네트워크 안에서 아시아 생산 기지를 보완하는 데 있다. 멕시코의 핵심 강점은 신속한 납품과 USMCA 기반의 시장 접근성이나, 이는 기업들이 원산지를 증빙하고 규정 준수 심사에 대응할 역량을 갖출 때에 한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니어쇼어링을 둘러싼 핵심 질문은 '멕시코가 이익을 거둘 것인가'가 아니라, '멕시코가 자국 내 부가가치와 협력업체 역량을 충분히 빠르게 제고하여 무역 비중 확대를 지속적인 산업 고도화로 전환할 수 있는가'이어야 한다.

### 구조적 제약과 니어쇼어링 2.0

#### 규정 준수 압력과 원산지 규정의 전략적 중요성

USMCA 공동 검토 주기는 규정 준수 역량을 전략적 자산으로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2026년 7월 1일 예정된 첫 번째 6개년 공동 검토에 앞서 2025년 12월 협정 이행 실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증 자료와 정책 입장을 수렴하였다.<sup>10)</sup> 이어 2026년 2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북미산 부품 조달 요건 충족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였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무관세

8) U.S. Census Bureau. (2025). International Trade: Top Trading Partners — December 2025 (goods, Census basis; unrevised).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statistics/highlights/topyr.html>

9)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accessed 2026). Mexico — Trade Facts (2024 totals). <https://ustr.gov/countries-regions/americas/mexico>

10)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2025, December 1). Public Hearing on the First Joint Review of the USMCA.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5/december/public-hearing-first-joint-review-usmca>

혜택을 받으려면 높은 역내 부가가치 비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만큼 산업 정책과 무역 규율이 맞물리는 핵심 영역이다. 특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가치 창출의 중심이 배터리, 전기·전자 부품,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어 역내 부가가치 비율 충족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sup>11)</sup> 공동 검토 이후에도 규정 준수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검증 대응 준비성이 기업의 입지 결정에서 핵심 고려 요소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멕시코가 대응해야 할 정책 과제를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투자 유치는 문서화·이력 추적 지원과 병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협력업체용 표준화 서식, 디지털 기록 관리, 규정 준수 심사 리스크를 낮추는 원산지 규정 준수 컨설팅 서비스의 도입이 요구된다. 둘째, 원산지 규정 강화 압력을 산업 고도화의 발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규정 준수 기준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입재를 현지화 할 유인을 갖게 되나, 이는 국내 협력업체가 비용·품질·납기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실현된다. 결국 이는 단순 조립을 넘어선 2·3차 협력업체 역량 강화가 핵심 의제임을 의미한다.

### 구조적 제약과 기업환경 데이터

이러한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 요인들은 갈수록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안정성과 전력망 연계 일정은 전자기기, 자동차 부품, 첨단 제조업 분야의 계획적 생산 확대 가능 여부를 좌우한다. 주요 산업 회랑에서는 수자원 가용성과 재활용 역량이 핵심 제약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경 물류의 경우 혼잡·검사·불균일한 절차로 인해 납기가 지연될 경우 지리적 근접성의 이점이 상쇄된다. 인허가 속도와 법적 예측 가능성은 자본의 시간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기업들은 프로젝트를 북미 내 다른 부지 또는 경쟁 지역으로 전환하게 된다. 운송 보안과 물류 안전성은 보험 비용과 적시 생산(JIT: Just-in-Time) 방식의 실행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 단위의 실증 데이터는 실행 속도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2023년 멕시코 기업환경조사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28.4%가 정전을 경험하였으며 기업당 월평균 정전 횟수는 0.2회로 집계되었다. 전력 연결 신청 후 완료까지의 중위 소요 기간은 4.8일, 수도 연결은 3.2일이었다. 무역 원활화 측면에서는 직접 수출 통관에 평균 20.5일, 수입 통관에 16.6일이 소요되었으며, 건설 허가 취득에 21.2일, 영업 허가 취득에 18.0일이 걸렸다. 고위 경영진은 업무 시간의 15.8%를 정부 규제 대응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행정 지연이 투자 결정에 실질적인 비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sup>12)</sup>

수자원은 단순한 인프라 변수를 넘어 일부 산업 회랑에서는 성장 자체를 제한하는 물리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s Institute)의 Aqueduct 4.0\*은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11)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2026, February 19). USITC to Investigate Impact of USMCA Automotive Rules of Origin on the United States in Third Factfinding Report in Series (News Release 26-026; Inv. No. 332-608). [https://www.usitc.gov/press\\_room/news\\_release/2026/er0219\\_68151.htm](https://www.usitc.gov/press_room/news_release/2026/er0219_68151.htm)

12) World Bank. (2023). Mexico Enterprise Survey 2023: Country Profile. Enterprise Surveys. <https://www.enterprisesurveys.org/content/dam/enterprisesurveys/documents/country/Mexico-2023.pdf>

80% 이상을 취수하는 지역을 극도로 높은 수자원 스트레스 지역으로 분류하며, 멕시코는 수자원 리스크가 산업 성장에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요 경제권 중 하나로 지목된다. 멕시코 국가수자원위원회 (CONAGUA: Comisión Nacional del Agua)의 지하수 가용량 산정 방법론에 따르면, 연간 가용량이 음수인 경우 대수층 적자 상태로 규정되므로, 산업 클러스터가 확장하는 지역일수록 수자원 재활용과 수요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된다.<sup>13)14)15)</sup>

\*Aqueduct 4.0: 세계자원연구소(WRI)가 개발한 전 세계 수자원 리스크 평가 플랫폼으로, 국가·유역별 수자원 스트레스, 가뭄·홍수 위험도 등을 수치화하여 제공한다. 기업·정부·연구기관의 입지 선정 및 수자원 리스크 관리에 활용된다.

국경 간 물류 역량은 지리적 근접성이 실질적인 경쟁 우위로 작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미국 교통통계국(BTS: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에 따르면, 2024년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간 화물 총액은 1.6조 달러(2,358조 8,800억 원)에 달하였으며 대부분은 육상 운송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역 규모를 감안할 때, 주요 국경 통과 지점에서 혼잡·검사·불균일한 절차로 인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경제적 비용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sup>16)</sup>

## 정책 제언과 한·멕시코 협력

### 조립 주도에서 역량 주도로의 전환

이러한 맥락에서 멕시코의 발전 목표는 단순한 무역 지표 개선을 넘어 국내 역량을 실질적으로 심화하는 '니어쇼어링 2.0'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전동화 분야는 기회의 규모가 크나 원산지 규정 준수와 부품·소재·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협력업체의 역량 성숙도가 관건이다. 전자기기·첨단 조립 분야에서는 시험, 패키징, 수리, 역내 유통 등 속도와 조정 역량이 요구되는 부문을 선점하는 한편, 기술과 장비는 아시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의료기기 등 규제 제조업 분야는 표준 준수, 품질 시스템, 콜드체인(cold chain)\* 물류 역량을 갖출 경우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아울러 이들 부문 전반에서 '서비스 니어쇼어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엔지니어링, 물류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백오피스(back-office) 업무는 시간대 근접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핵심 경로에 해당한다.

\*콜드체인(cold chain): 의약품·식품·생물학적 제제 등 온도에 민감한 제품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 전달까지 전 과정에서 일정한 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물류 관리 체계를 의미

### 지역화의 세 가지 경로

2026~2035년 전망과 관련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전략 수립의 유용한 준거 틀을 제공한다. 시나리오 A(니어쇼어링 2.0)는 전략 부문의 선택적 심층 지역화, 높은 국내 부가가치 비율, 탄탄한 협력업체 생태계 구축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시나리오 B(다각화를 동반한 재세계화)는

13) World Resources Institute (WRI). (2023, August 16). 25 Countries Face Extremely High Water Stress. <https://www.wri.org/insights/highest-water-stressed-countries>

14) World Resources Institute (WRI) Aqueduct Help Center. (n.d.). Prioritize Basins: Target Water Challenges by Thresholds (Baseline Water Stress). <https://www.wri.org/aqueduct/help-center/prioritize-basins-thresholds>

15) Comisión Nacional del Agua (CONAGUA). (n.d.). Disponibilidad Media Anual de Agua Subterránea (DMA) y Disponibilidad por Acuífero. [https://sigagis.conagua.gob.mx/gas1/sections/Disponibilidad\\_Acuiferos.html](https://sigagis.conagua.gob.mx/gas1/sections/Disponibilidad_Acuiferos.html)

16) U.S.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BTS). (2025, March 20). TransBorder Freight Annual Report 2024. <https://www.bts.gov/newsroom/transborder-freight-annual-report-2024-0>

장거리 공급망을 유지하되 이중화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멕시코는 이익을 확보하나 동남아시아와의 경쟁은 지속된다. 시나리오 C(강도 높은 분절화)는 통제 조치와 관세 부과로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으로, 멕시코는 지리적 근접성의 가치가 높아지는 반면 규정 준수 부담 증가와 수요 불안정이라는 과제에 직면한다. 어느 시나리오에서든 정책의 핵심은 국내 병목 요인 해소, 규정 준수 인프라 구축, 협력업체 역량 강화를 통해 멕시코의 경쟁 우위를 지리적 거리가 아닌 신뢰성과 실행 역량에서 찾는 데 있다.

### 무역·부가가치·실행 지표로 본 진전 상황 점검

니어쇼어링의 실질적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멕시코는 다음의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i) 부문별 미국 수입 비중 변화, (ii) 산업 고도화의 대리 지표로서 수출 내 국내 부가가치 비중(TiVA), (iii) 국경 통관 소요 시간 및 물류 신뢰성, (iv) 신규 산업 생산 역량(건설 착공, 전력 수요, 산업단지 입주율), (v) 협력업체 생태계 지표(인증 기업 수, 국내 조달 계약 건수)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표들이 2026년 공동 검토 이전에 개선 추세를 보인다면, 투자자들은 공동 검토를 리스크 요인이 아닌 신뢰도 제고의 계기로 인식할 것이다.

### 한국의 협력 역할과 강점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멕시코의 산업 고도화 의제에 있어 유력한 협력 파트너로 부상한다. 한국 기업들은 자동화, 품질 시스템, 첨단 제조 공정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멕시코 내 고부가가치 부문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 정책입안자들에게 멕시코는 USMCA 규범을 준수하면서 북미 공급망을 다각화할 수 있는 전략적 리스크 분산 거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조립 주도형과 역량 주도형 니어쇼어링

멕시코는 대중국 무역 재편의 수혜를 누리는 동시에, 현재 중요한 전략적 기로에 놓여 있다. 하나는 '조립 주도형 니어쇼어링'으로, 최종 조립과 물류 활동을 추가로 확보하면서도 수입 중간재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내 부가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지 못하는 경로이다. 다른 하나는 '역량 주도형 니어쇼어링'으로, 현재의 기회를 활용하여 협력업체 역량을 고도화하고 첨단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더 높은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정 준수·표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로이다. 후자가 더 어려운 경로임은 분명하나, 지속 가능한 발전 성과는 바로 이 경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 니어쇼어링의 지속성과 구조적 재편

BIS의 수입 비중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와 다수 아시아 경제권이 동시에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니어쇼어링이 일회성 충격이 아닌 지속적인 공급망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임을 시사한다. 멕시코가 다원화된 공급망 네트워크 안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통해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멕시코의 경쟁 우위는 속도와 확실성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속도는 지리적 근접성과 시간대 동조화를, 확실성은 예측 가능한 인허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규정 준수 심사 대응 역량을 갖춘 규정 준수 체계를 의미한다.

### 단계별 정책 의제

이에 USMCA 공동 검토 이전 시기의 실행 역량 구축을 우선순위로 삼아 단계별 정책 권고사항을 제안한다.

1) 투자 촉진 '신속 처리 체계' 구축 (0~12개월): 산업 허가, 토지 용도 변경, 환경 심사, 전력망 연계 절차에 대한 서비스 기준을 공표하고 단일 창구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목표는 규제 완화가 아닌 예측 가능한 처리 속도의 확보이다. 인허가 일정이 불확실할 경우 하루하루의 지연이 투자자가 다른 관할권과 비교할 때 실질적인 비용 요인으로 작용한다.

2) 규정 준수의 산업 인프라화 (0~18개월): 자동차,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 전략 부문을 대상으로 원산지·이력 추적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표준화된 문서화 도구, 협력업체 교육, 규정 준수 심사 대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산지 규정 심사가 강화되는 환경에서도 규정 준수 관련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다.

3) 2·3차 협력업체 육성 의제 추진 (6~24개월): 인증 지원(품질, 계측, 표준), 설비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앵커 투자자와의 협력업체 매칭 플랫폼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지원은 취득 인증 수, 납기 이행률, 불량률, 국내 부가가치 기여도 등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와 연동한다.

4) 에너지·수자원 신뢰성 격차 해소 (병행 추진): 명확한 확장 계획, 이중화 설비, 수자원 재이용 방안을 갖춘 산업 회랑을 우선 지원한다. 전국적 역량 확충보다는 클러스터가 성장하는 지역에 신뢰할 수 있고 재정 조달이 뒷받침되는 역량을 집중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5) 통관 소요 시간 지표를 활용한 국경 물류 현대화 (0~24개월): 사전 통관 및 신뢰 무역업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통관 서류 처리를 디지털화 하며, 물동량이 집중된 주요 국경 통과 지점에 인프라 투자를 집중한다. 개선 성과는 지표로 공표하여 기업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한다.

6) 기술 인력 역량 강화 및 '서비스 니어쇼어링' 확대 (12~36개월): 엔지니어링, 자동화, 물류 IT, 사이버보안 분야의 기술 교육, 산학 연계 프로그램, 산업 파트너십을 확충한다.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 부가가치는 모든 투입재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경로에 해당한다.

### 회랑 단위 거버넌스와 성과 대시보드

정책 의제의 설계만큼이나 실행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멕시코는 개혁의 기반을 회랑 단위 거버넌스에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잠재력이 높은 소수의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명확한 병목 진단과 이행 목표를 설정하고, 인허가 처리 기간, 전력망 연계 대기 현황, 국경 통관 소요 시간, 협력업체 인증 진행 상황을 포함한 성과 대시보드를 구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는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개선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가시적으로 제시하는 토대가 된다.

### 한·멕시코 협력과 협력업체 고도화

한·멕시코 협력은 멕시코의 역량 주도형 니어쇼어링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협력업체 개발 프로그램에서 앵커 투자자이자 멘토로서 품질 시스템과 자동화 노하우를 멕시코 2·3차 협력업체에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의 공적 금융 및 수출신용 수단은 현지 협력업체의 설비 고도화와 표준 준수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경감하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2026년 검토클 신뢰도 제고의 계기로

멕시코가 이러한 우선과제들을 실행에 옮긴다면, 2026년 공동 검토클 리스크 요인이 아닌 신뢰도 제고의 계기로 전환될 수 있다. 멕시코는 니어쇼어링을 발전 전략으로 내재화하여 두터운 협력업체 생태계, 높은 생산성, 탄탄한 북미 생산 기지 구축이라는 성과로 이어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북미 시장 접근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플랫폼 확보와 멕시코의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의 공동 투자·기술 협력 기반 강화라는 실질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2025, December 1). Public Hearing on the First Joint Review of the USMCA.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5/december/public-hearing-first-joint-review-usmca>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2026, February 19). USITC to Investigate Impact of USMCA Automotive Rules of Origin on the United States in Third Factfinding Report in Series (News Release 26-026; Inv. No. 332-608). [https://www.usitc.gov/press\\_room/news\\_release/2026/er0219\\_68151.htm](https://www.usitc.gov/press_room/news_release/2026/er0219_68151.htm)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2024, July). Evidence of nearshoring in the Americas? BIS Bulletin No. 94, and Online Annex (Graph A1). <https://www.bis.org/publ/bisbull94.pdf>
- U.S. Census Bureau. (2025). International Trade: Top Trading Partners — December 2025 (goods, Census basis; unrevised).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statistics/highlights/topyr.html>
-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accessed 2026). Mexico — Trade Facts (2024 totals). <https://ustr.gov/countries-regions/americas/mexico>
- World Bank. (2023). Mexico Enterprise Survey 2023: Country Profile. Enterprise Surveys. <https://www.enterprisesurveys.org/content/dam/enterprisesurveys/documents/country/Mexico-2023.pdf>
- World Resources Institute (WRI). (2023, August 16). 25 Countries Face Extremely High Water Stress. <https://www.wri.org/insights/25-countries-face-extremely-high-water-stress>

s://www.wri.org/insights/highest-water-stressed-countries

- World Resources Institute (WRI) Aqueduct Help Center. (n.d.). Prioritize Basins: Target Water Challenges by Thresholds (Baseline Water Stress). <https://www.wri.org/aqueduct/help-center/prioritize-basins-thresholds>
- Comisión Nacional del Agua (CONAGUA). (n.d.). Disponibilidad Media Anual de Agua Subterránea (DMA) y Disponibilidad por Acuífero. [https://sigagis.conagua.gob.mx/gas1/sections/Disponibilidad\\_Acuiferos.html](https://sigagis.conagua.gob.mx/gas1/sections/Disponibilidad_Acuiferos.html)
- U.S.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BTS). (2025, March 20). TransBorder Freight Annual Report 2024. <https://www.bts.gov/newsroom/transborder-freight-annual-report-2024-0>
- OECD. (2025). OECD Supply Chain Resilience Review.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supply-chain-resilience-review\\_94e3a8ea-en.html](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supply-chain-resilience-review_94e3a8ea-en.html)
- World Economic Forum. (2026, January 23). Global Value Chains Outlook 2026: Orchestrating Resilience. [https://reports.weforum.org/docs/WEF\\_Global\\_Value\\_Chains\\_Outlook\\_2026.pdf](https://reports.weforum.org/docs/WEF_Global_Value_Chains_Outlook_2026.pdf)
- OECD. (2023). Deglobalisation? The reorganisation of global value chains in a changing world.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3/04/deglobalisation-the-reorganisation-of-global-value-chains-in-a-changing-world\\_324dfabd/b15b74fe-en.pdf](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3/04/deglobalisation-the-reorganisation-of-global-value-chains-in-a-changing-world_324dfabd/b15b74fe-en.pdf)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4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